

| 찬 송 |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통일. 94장)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자의 위로와 없는자의 풍성이며 천한자의 높음과 잡힌자의 놓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1.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 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후렴]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비전 제언

우리는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사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며 이의 실현에 힘을 쓸 것을 다짐한다.

-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적이고 교단 이기적인 사회봉사를 넘어서 보다 전문적인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 도움이 필요한 약자에게 물질을 매개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위배 된다. 교회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궁극적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 디아코니아는 민족, 언어, 이념, 문화, 장소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위기의 상황에서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기아, 기근, 지진 등과 같은 재해를 당한 곳에서의 구호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인도주의적 구호에 있어서 정부와 다양한 구호전문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해야 한다.
- 정부의 사회복지망에서조차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과 더 나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교회는 우선적 사랑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후 2016년 10월 16일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참가자 일동



한국교회봉사단 KOREAN DIAKONIA www.koreandiakonia.org

TEL : 02-747-1225 | FAX : 02-764-1225 | e-mail : kd@koreandiakonia.org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705호

기독교사회복지 EXPO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개막식



주후 2016년 10월 16일(주일) 오후 4시 서울광장

- 주최 | 2016디아코니아코리아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월드디아코니아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개최를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과 나눔의 총량을 가능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 및 시민사회와 중앙 지방정부 등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대사회적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인사말 |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한일서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마가복음 10:45).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선교와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더욱 디아코니아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금번 '디아코니아 코리아'에서는 그동안 묵묵히 감당해온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여러 사역들이 소개되고, 앞으로 이 귀한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여러 세미나와 집회가 진행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 우리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보며 위로하고 후원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섬김과 나눔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디아코니아 코리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대회장 **김삼환** 목사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로마서 12:15)"는 말씀처럼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렇기에 섬김과 나눔은 교회의 거룩한 본능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약한 자, 고통하는 자,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6은 예수님께서 보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길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며, 한국교회에 다시금 섬김의 동력을 확보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과 봉사의 거룩한 파문(波紋)을 일으키는 진원지임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교단과 신학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를 하나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명령에 대한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요, 의무입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과 지역을 넘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때 섬김과 봉사의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6이 우리 사회는 물론이요, 장차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엑스포를 통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섬김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진정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상임대회장 /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

| 개막식 순서 |

오프닝공연		■ 사회 : 이광기(방송인), 최윤영(아나운서)
공 연	대니정 / 유엔젤보이스
감사와 찬양		■ 사회 : 오정현 목사(상임대회장 / 조직위원장)
사 도 신 경	다함께
찬 송 찬송가 96장(통일.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함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대 표 기 도	권태진 목사(집행위원장)
섬김과 나눔의 시	소강석 목사(공동준비위원장)
성 경 봉 독 베드로전서 4:10~11 두상달 장로(지도위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찬 양 오직예수 연합찬양대 & 오케스트라
메 세 지 “봉사하자”(섬기자, 나눠주자) 김장환 목사(고문)
주 제 기 도		

1.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위하여 : 한태수 목사(공동준비위원장)
2. 대외재난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 : 김한호 목사(강원지역대회장)
3. 우리나라와 복음적 평화통일과 북한동포를 위하여 : 이상대 목사(공동대회장)

섬김과 나눔		■ 사회 : 이광기(방송인), 최윤영(아나운서)
영 상	다함께
경 과 보 고	정성진 목사(공동준비위원장)
개막선언 및 인사	김삼환 목사(대표대회장)
환 영 사	오정현 목사(상임대회장 / 조직위원장)
축 사 1	박근혜 대통령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독)
축 사 2	박원순 서울시장
격 려 사	이성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여성삼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유관재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비 전 제 언	손인웅 목사(상임대회장)
섬김과 나눔의 노래	조성기 목사(실무준비위원장)
축 도	장종현 목사(상임대회장)
광 고	천영철 목사(사무총장)

전시관 개관 커팅

축하공연

■ 소울싱어즈, 남경주와 친구들